

이통3사 통신비 300억원 초과징수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99만 4000건(273억원) 달해... 과오납 요금 발생 정확한 사유 밝히지 않아

이동통신 3사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요금을 잘못해서 더 받은 256만건(300억원) 가운데 56만건(27억원)을 환불조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 4000건(2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통3사는 아직까지 약 56만건, 27억원의 과오납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금 과오납 환불 현황은 SK텔레콤 6만 5000건(162억원), KT 120만 3000건(104억원), LG유플러스 18만 6000건

(7억원)이다. 금액으로는 SK텔레콤이, 환불 건수로는 KT가 많았다. 미환불 잔액도 SK텔레콤이 11억 9000만원(6만7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가 8억9900만원(15만5000건), LG유플러스 6억7000만원(33만 9000건) 순이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환불해준 건수(18만 6000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 9000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수십 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막상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최명길 의원실에 따르면, 과오납 요금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라고만 밝혔을 뿐이다.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통신사 또는 고객)가 어디에 있는지와 그밖에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금은 환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불 시점들 기준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다보니 과오납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과오납 통계 자체도 믿기 어려울 수 있다.

원인을 몰라 집계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요금을 잘못 납부한 것을 알고 환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요금을 잘못 청구한 사실 자체를 회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복잡한 요금 체계로 인해 고객들은 청구된 요금의 세부 내역을 알

기가 쉽지 않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요금을 잘못 납부하고 있는 고객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환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만 체크할 뿐 과오납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통사들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위위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명길 의원은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정감사 때 지금까지 규제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왔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시스

전주시, 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모집

전주시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Ⅱ 4차 신규가입 대상자를 오는 19일까지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 능력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가 노동시장에서 일을 통해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우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가입자 모집은 이번이 올해 마지막 차수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최대 360만원(3년 기준)이 추가로 지원돼 3년 만기 시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4인 가족 기준: 223만3690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

위계층 가구로, 신청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 법정 차상위가가 아니라도 소득인정액(중위소득 50%이하)을 충족하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절차는 근로활동 확인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하면 되며, 가입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가입 후 3년 동안 전북광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재무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각 연 2회 이상 이수하면 된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근로 빈곤층의 진입을 사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자립자활을 향한 꿈도 키우고 목돈 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한국, ICT 부문 OECD 1위

부가가치·고용·특허에서 차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부가가치·고용·특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ECD가 발간한 디지털경제전망 한국 특별판에서 ICT 부가가치(10.4%)·ICT 고용 비율(4.6%)·연구개발(R&D) 사업지출 중 ICT 점유율(3.3%)·ICT 특허 비율(18%)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경제전망은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에서 2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으로 회원국의 디지털경제 동향과 전략, 정보통신기술(ICT) 현황에 대한 통계 정보를 소개하는 보고서다. 회원국 정책 담당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이번 디지털경제전망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변혁'을 주제로 한 OECD 국제 컨퍼런스에서 공개됐다. 올해는 한국을 중심으로 기술한 디지털경제전망 한국 특별판이 함께 발간됐다. 이는 OECD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를 만든 최초의 사례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본부 이외의 국가에서 발

표한 것 역시 최초다. 디지털경제전망 한국 특별판은 한국 경제에서 ICT는 경제성장의 중심축이자 혁신성장과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초고속인터넷 등 ICT 인프라 기반이 잘 구축된 것으로 봤다. 더해 인터넷 검색·이메일 등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활용은 높게 평가된 반면 클라우드컴퓨팅·빅데이터 등 고급 ICT 분야 활용은 현재 낮은 상태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경제전망 한국 특별판은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산업용 로봇 활용이 많은 편(3위)이며, 공공데이터 접근성과 가용성이 가장 우수(1위)한 디지털 정부로 평가했다. 최근 정부와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보안 정책의 시행으로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기업들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에 있어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거대한 변화의 이점과 잠재력을 최대로 높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시스

미래 금융인 역량강화 캠프 11~12일 진행

미래의 금융인을 위한 역량강화 캠프가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주최·주관으로 11~12일 진행되고 있다. 이 캠프에는 도내 18개 상업계열 고교의 1·2학년 학생 중 금융권 취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 43명이 참여해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경제지식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된다. 학생들은 첫날인 11일 오전 10시 한국은행 전북본부 방문에 이화찬 부국장으로 부터 '돈과 금융 이해하기'를 주제로 특강을 듣고 캠프 장소인 진안고원 치유숲으로 이동한다. 이어 오후 2시20분에는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윤태완 수석으로부터 '고등학생을 위한 금융이야기' 특강을 듣고 취업지원관에게서 금융기관의 유형 및 자격증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오후 7시부터는 같은 꿈을 가진 또래 학생들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데 캠프파이어와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또래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도 갖는다. 캠프 둘째 날인 12일에는 오전 9시 그룹별로 다짐의 시간을 가진 뒤 10시30분부터는 특성화고 출신 선배 금융인들과 만남을 갖는다. 오후에는 이 미지메이킹 및 면접스킬 강의에 이어 캠프활동 소감 발표를 끝으로 캠프를 마친다. /정혜은 기자

/뉴스시스

5G기술 세계화 시동... 내년 1월 후보기술 제출

정부가 5G 국제 표준 주도권 확보에 본격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28차 국제전기통신연합 이동통신작업반(ITU WP5D)' 회의에서 국내 5세대(5G) 후보기술 제출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회의를 통해 2020년까지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5G 국제표준을 완성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국가 간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5G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5G 후보기술 제출 의향서를 공식 발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의향서의 주요내용은 ▲국내기술과 민간표준(3GPP)간 공조 ▲초고속주파수 대역 활용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유럽, 3GPP(민간표준화 단체)도 5G 후보기술 제출 의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평창동계 올림픽 개최 직전인 2018년 1월31일~2월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차기 ITU 회의에서 5G 후보기술을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시스

/뉴스시스

좋은 홍삼 고르는 법 알려드려요

19~22일까지 진안홍삼축제장 방문 추천

민고 먹을 수 있는 진짜 좋은 홍삼을 구입하고 싶다면 오는 19~22일까지 전북 진안 마이산 북부에서 개최되는 2017 진안홍삼축제장에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현대인들이 건강보조식품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홍삼인데 반해 홍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홍삼은 인삼을 증기로 쪄서 밀려 딱딱한 것으로 6개월 이상 숙성된 것이 좋다. 홍삼이라고 하면 보통 1차 가공한 뿌리홍삼(미삼포함)과 뿌리홍삼을 2차 가공하여 만든 홍삼정, 홍삼액, 홍삼절편 등을 말한다.

뿌리홍삼은 제품 포장에 검사필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고, 2차 홍삼 가공품은 제품 뒷면에 제품에 대한 성분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홍삼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홍삼 외에 기타식물성 추출물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1mg당 진세노사이드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번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에는 진안홍삼연구소 연구원들이 홍삼 주재관을 운영해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홍삼에 대한 오해와 홍삼에 대한 효능 등을 재미있는 게임과 함께 설명해준다.

/진안=우태만 기자



또한 행사장 곳곳에 홍삼축제해설사들이 배치되어 홍삼이야기와 함께 올바른 홍삼제품 고르는 방법, 축제장 전반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홍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삼명인이 만드는 전통식 홍삼제조 방식과 대량생산하는 현대식 홍삼제조과정을 축제장에 마련했다.

올해 홍삼축제를 준비한 유경중 홍삼축제추진위원장은 "그동안 가격이 싸다고, 또는 브랜드 있는 제품이라고 편편히 따져보지도 않고 홍삼을 구매하였다면, 이번 진안홍삼축제장에서 좋은 홍삼 고르는 법을 배워 똑똑한 소비를 하고 기쁘게 소비를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는데 힘이 되어 주는 착한 소비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